



Ewha Medical School News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의료인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의료인
사회에 봉사하며 존경받는 의료인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 1: 4)

발행인 : 박혜영 편집인 : 이화영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서울 양천구 목6동 911-1 전화 02-2650-5703~4 팩스 02-2653-8891

제 24 호 < 2010.6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

◎ 2011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수시 경쟁률 4.22대1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6월 15일(화) 부터 17일(목)까지 모집한 2011학년도 수시모집 인터넷 접수 결과, 총 46명 모집에 194명(일반전형 총 39명 모집에 185명, 특별전형 총 7명 모집에 9명)이 지원하여 4.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른 의학전문대학원과는 달리 여학생만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 이화에 대한 지원자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은 이번 수시모집 경쟁률 결과와 관련해 “여성 리더십 교육에 큰 역할을 해온 이화의 역할을 바탕으로 한 이화의전원의 장점에 많은 지원자가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화의전원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봉사하는 여성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시모집 1단계 합격자는 오는 7월 28일(수)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www.ewhamed.ac.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오는 9월 4일(토) 심층구술면접 및 필답고사를 실시한 후 10월 6일(수)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 졸업 50주년·30주년 기념 모교방문의 날 행사 개최



의학전문대학원은 ‘졸업 50주년 및 30주년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졸업 50주년 행사는 5월 14일 신촌 본교 선관회의실에서 안정자 교수의 기도,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이화의대 홍보영상을 감상한 후 기념 촬영을 했으며, 이화역사관, ECC내부, 박물관 등을 둘러보았다. 모교 방문의 날 행사에 참여한 많은 동창들은 “학교를 돌아보며 그동안 이화여자대학교가 쌓은 업적과 역사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다”면서 “과거 대학생 시절을 회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마련해준 학교측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9회 졸업생들은 학교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일천 육십 만원을 기증했다.

한편 5월 31일(월) 엠버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졸업 30주년 행사는 성금영 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29회 졸업생들과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 김태임 동창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해 30주년 행사를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 29회 졸업생들은 장학금 5,700만원을 기증해 모교와 후배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한편 5월 31일(월) 엠버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졸업 30주년 행사는 성금영 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29회 졸업생들과 박혜영 의학전문대학원장, 김태임 동창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해 30주년 행사를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서 29회 졸업생들은 장학금 5,700만원을 기증해 모교와 후배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 신입 교원 워크숍

2010년 4월 16일(금) 의학관 B동 8층 EMSC에서 신입 교원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신입 교원 워크숍은 한재진 의학교육실부장의 소개를 시작으로 이화의과대학 & 의전원의 역사(이순남교수), 의전원의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의 개요(한재진교수), 최신 강의법(권복규교수), SGA(홍영선교수), 교수 업적 평가 및 자기관리(서석효교수), 교수연구활용 Tip(조인호교수)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신입 교원 워크숍에는 한재진 의학교육실부장 외 5명의 발표자, 12명의 신입 교원들이 참가하였다.

◎ 제 4차 PBL 교수 워크숍 개최

6월 11일(금) 의학대학 강 의실에서 제 4차 PBL 교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PBL 워크숍은 PBL에 대한 발전된 개념을 공유하고 수업의 보다 원활한 진행을 돕고자 개최되는 것으로, PBL 수업의 개념과 원칙,



진행 등에 관한 강의와 소그룹 토의 및 Tutor로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관하여 그룹 토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PBL 워크숍에는 박혜영 대학원장, 이지수 PBL 위원회 위원장 외 PBL 위원 10명, 23명의 교수들이 참가하여 PBL 교육에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토론하고, PBL 모듈에 참가하는 기회를 가졌다.

◎ 의료인을 위한 BLS (Basic Life Support) 과정 개최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와 미국심장협회(AHA)가 승인한 BLS Training Site인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상반기에 총 6회의 BLS-HCP (Basic Life Support for Health Care Provider) 과정을 개최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임상 혹은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2학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본 센터에서는 상반기 3회, 하반기 4회의 의전원생을 위한 BLS-P과정을 계획하여 상반기 5월 22일(토), 6월 5일(토), 6월 12일(토)에 실시하였으며 총 34명의 자격자를 배출하였다.

학생 및 교수 소식

[학/생/소/식]

* 의전원 박소현 학생, '청년슈바이처 상' 수상



의학전문대학원 박소현 학생(의학과 2년)이 제 10회 'MSD 청년슈바이처 상' 사회활동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의료윤리학회와 청년의사신문이 주관하는 'MSD 청년 슈바이처 상'은 한국 의료계를 책임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사회적 책임과 인간 존중, 통찰을 갖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제정된 상이다. 올해로 10회 째를 맞이한 'MSD 청년 슈바이처 상'은 국내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상으로 연구활동과 사회활동으로 나눠 시상한다.

'청년슈바이처 상' 심사위원회 측은 "박소현 학생은 평소 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회장과 학생신문사 기자 등 활발한 과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아프리카 환경보호 봉사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으로 봉사의 의미를 확대한 점이 크게 인정받았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박소현 학생은 지난 6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있는 시상식에서 "환자의 몸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할 수 있는 진정한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김민지 학생이 전하는

- 2010년 Ewha Medical student's Training day-



5월 31일은 모든 이화인들이 일 년에 한 번 손꼽아 기다리는 개교기념일입니다. 휴일이라고 마냥 좋아하기만 하던 예년과는 달리 올해 이화 의전원 학생들은 이날 아침, 매우 분주했습니다.

바로 체육대회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화 한강 공원이란 특이한 장소만큼이나 특별했던 우리들의 체육대회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파트가 뽀뽀하던 목동을 벗어나 앞으로는 탁트인 한강을 마주하며 드넓은 축구장의 한가운데 서서, 그리 뜨겁지 않은 햇살을 받으며 있자니 오랜만에 맞는 상쾌한 공기 냄새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사자, 호랑이, 기린, 코끼리 팀으로 각자 나누었고 자기 팀 동물모양의 썸캡을 씌웁니다. 다소 유치한 모자였지만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서 금방 좋아하게 되었고 점차 각 팀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레크리에이션이 있었습니다. 얼떨결에 팀 대표가 되어 나와 있는 친구들이 팀을 위해서 춤도 추고 상대모사도 하는 열정적인 모습에 감탄을 연발하였습니다. 물론 소소하게 걸려있었던 상품들도 필사적으로 퀴즈의 답을 맞히려 하는데 한 몫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교실 안에서나 밖에서나 자신의 에너지를 아끼지 않으며 노력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이화의 얼굴들이라는 생각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체육대회를 응원해주시러 최원희, 조인호, 최수승 교수님들께서 와주셨습니다. 승부욕에 이글거리는 우리와 함께 게임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도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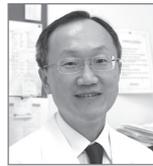
그리고 오후의 하이라이트 경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오를 지나면서

태양도 점차 그 열기를 더 얻고 있었지만, 우리들의 체력은 아직 소진되려면 멀었는지 지칠 줄 모르고 타올랐습니다. OX퀴즈에서는 끝까지 함께 하자던 친구들이 줄 너머에 있기도 했지만, 패자부활전에서 부활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는 이산가족 상봉 하는듯한 기쁨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짝피구 시간. 불꽃 솟은 피구왕 통기만 할 줄 아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숨겨진 파워레인저들이 점프솟도 완성시키고, 불꽃 솟을 넘어선 태풍 솟을 날리는데 아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중에도 짝이 된 선후배들끼리 끈끈하게 챙겨주면서 이끄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대의 점수가 걸려있었던 계주. 축구장이 워낙 넓어서 뛰어야 하는 길도 참 길었는데, 그 동안의 우아한 이미지는 잠시 접어두고 운동화 끈을 질끈 묶으며 이를 악물고 달리던 계주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날의 승리는 호랑이 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팀원들이지만 전부 하나가 되어서 이뤄낸 결과라 그런지 모두가 정말 기뻐하며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학교 안에서 항상 부딪히고 살아가지만 서로를 잘 알지 못했던 면도 참 많았습니다. 그걸 다 알아가는 데에 하루라는 시간이 참 짧을 지도 모르겠지만, 오늘의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었던 에너지를 보았고 함께 해낼 수 있다는 것에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5월의 체육대회를 모두가 특별했던 이화에서의 추억으로 기억할 것이며, 내년 이맘때를 또 기다려 봅시다.

[교/수/소/식]

* 유권 교수, 양천메디컬센터 초대원장에 선임



내과학교실 유권 교수가 이화의료원 양천메디컬센터의 초대 병원장에 선임됐다.

유권 교수는 1982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인제의대를 거쳐 2000년부터 이화의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의무부장,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2010년 2월부터 양천메디컬센터 새병원기획단장을 맡아 왔다.

유권 교수는 수년간 보직을 수행해 오면서 양천메디컬센터의 성공적 개원과 조기 안정화를 이를 적절한 인물로 평가받아 초대 병원장으로 선임됐다. 내년 상반기 중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개원 예정인 양천메디컬센터는 이화의료원이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은 노인질환 전문병원이다.

* 정상혁 교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임명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예방의학교실 정상혁 교수가 임명되었다.

정상혁 교수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관동의대, 포천중문의대 교수를 거쳐 이화의대 교수로 재임 중이다. 또한 의료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과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 김상진 교수, 신경통증학회장에 선임



신경외과학교실 김상진 교수가 지난 9일 한양대학교 HPI빌딩 6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신경통증학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제5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신임 김상진 회장은 77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국립의료원, 인제대 상계백병원을 거쳐 2002년부터 이대목동병원 신경외과 주임교수 및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연구와 교육, 진료에 전념하고 있다.

*** 심봉석 교수, 요로생식기감염학회장에 선출**



비뇨기과학교실 심봉석 교수가 지난 1일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소에서 개최된 '제8차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에서 임기 2년의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심봉석 교수는 "요로감염분야는 비뇨기과 전 분야 뿐만 아니라 생활이나 행동, 노화와의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기초연구의 발전과 임상지침의 마련·보급 등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나라 요로감염학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봉석 교수는 최근 세계 3대 인명기관 중 하나인 미국인명정보기관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ABI)이 발행하는 '21세기 위대한 지성(Great Minds of the 21st Century)'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심봉석 교수는 '마르쿠스 후즈후(Marquis Who'sWho), 영국 국제인명센터(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 IBC)에 이어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됨으로써 한국 의료진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서현숙 의료원장, 세계 여성 원자력상 수상**



서현숙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세계 원자력 전문 여성 단체인 윈 글로벌(Women In Nuclear-Global)에서 수여하는 '세계 여성 원자력상' 2010년 수상자로 결정됐다.

서현숙 의료원장이 5월 11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리는 제18차 2010 윈 글로벌 연차대회에서 전 세계의 원자력, 방사선 이용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여성 원자력상'을 받았다.

세계 여성 원자력상은 전세계 대상 원자력 및 방사선 이용 분야의 발전을 위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여성전문가 1명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으로 수상자 선정은 각국에서 추천된 인사들 중 이사회 투표로 결정된다.

그동안 세계 여성 원자력상은 1996년부터 2009년까지 13명이 수상했으며 한국인으로는 1998년 신영순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 모임 전 총재, 2007년 안명옥 전 국회의원에 이어 이번에 서현숙 의료원장이 세 번째다.

서 의료원장은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윈-코리아 대표 박세문) 창설 초기부터 원자력 분야 발전에 기여해왔고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로서 국내치료 방사선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해왔음은 물론, 여성 리더로서 여성 원자력 전문가 육성에 크게 기여해온 점을 인정받아 올해의 세계 여성 원자력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서 의료원장은 1983년 미국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에서 방사선 치료 전문의자격증을 획득한 후 귀국해 유방암 치료에 주력해왔다.

1980년대 초 국내에서 거의 전무했던 유방 보전 치료 기법을 시행해 높은 완치율과 함께 이 분야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국내 처음으로 방사선 치료 후 피부 변색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절제 부위만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3차원 입체 방사선 치료 기법을 시행해오고 있다.

*** 김한수 교수, '2010년 세계 100대 의학자'에 선정**



이비인후과 김한수 교수가 최근 세계 3대 인명기관 중 하나인 영국국제인명센터(IBC)의 '2010년 세계 100대 의학자'에 선정됐다.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및 음성외과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온 김 교수는 임상연구 성과와

각종 논문을 발표하는 등 국내외 학회에서 보여준 탁월한 연구실적을 인정받아 인명사전에 등재됐다.

'의료전문가 100인'은 세계적인 인명기관인 영국 IBC가 전 세계 유수의 의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실적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평가를 거쳐 매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의료원 동성

◆ 이화의료원, 여성암 이어 위암·대장암 특화 육성

지난해 3월 국내 종합전문요양기관 최초로 여성암 전문병원을 개원한 이화의료원이 전문화 영역을 위암, 대장암 분야로 확대하고 향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월초 이대목동병원 내에 위암과 대장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위암·대장암합진센터를 개설한다.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성인지 의학에 바탕을 둔 연구와 진료로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이화의료원이 여성암 분야에서 쌓아온 명성을 위암·대장암 분야로 넓혀 이대목동병원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위암·대장암 협진센터는 외과, 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등 분야별 전문 의료진의 협진으로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적용하며 미세침습수술, 첨단 로봇 수술을 통해 정밀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화의료원만의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을 무기로 타 병원 대비 경쟁력을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서현숙 이화의료원장은 "위암, 대장암 분야가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지만 이대여성암전문병원이 개원 1년여 만에 여성암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경영 노하우를 살리는 한편,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진료 시스템과 서비스,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승부함으로써 조기에 위암, 대장암 치료에 감정을 갖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창회 소식

◆ 제4차 동기회장 및 전국지역구회장 회의

제4차 동기회장 및 전국지역구회장 회의가 4월 24일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강당에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웃음은 만병통치약입니다"라는 강의(강사: 오혜열소장)를 들으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고 동창회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나누었다.



◆ 제1회 영닥터스 포럼 개최

2010년도 제1회 영닥터스포럼이 5월29일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강당에서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고 "학습발달의 이해와 지도"라는 제목으로 김영화(30회 강동신경정신과원장)동창의 강연이 있었으며 자녀교육을 위해 힘쓰는 영닥터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모임은 젊은 동창회원들의 동창회참여를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다.



퇴임 인사

산부인과학교실 안정자 교수



35년간 산부인과학 교실에 재직하며 산부인과 전문의의 양성과 산과학 발전에 기여한 안정자 교수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1981년 본교로 부임한 이후 여러 보직을 거치면서 학교 발전에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학 교실의 주임교수이자 과장을 역임하였으며, 산부인과의 발전과 후학 양성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동료와 선후배, 제자 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 모두에게 따뜻한 인간애를 지닌 리더로 존경받고 있다.

특히, 1997년 교통사고를 겪은 이후 꾸준한 재활의지로 국내외 마라톤 47회 완주 기록을 가지고 있는 등 도전정신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언제나 검소하게 생활하며 활발한 기부 활동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안정자 교수를 만나 퇴임 후의 계획과 이화의대에서의 삶에 대하여 들어 보았다.

특히, 1997년 교통사고를 겪은 이후 꾸준한 재활의지로 국내외 마라톤 47회 완주 기록을 가지고 있는 등 도전정신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언제나 검소하게 생활하며 활발한 기부 활동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안정자 교수를 만나 퇴임 후의 계획과 이화의대에서의 삶에 대하여 들어 보았다.

1. 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어서 퇴임했으면 했는데 막상 얼마 앞으로 다가오니 섭섭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오랜 기간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쉬면서 여가생활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라고 퇴임이 있는 것 같다.

2. 평소에 퇴임을 생각해 보셨는지?

갑자기 쉬게 되면 허무해 질 것 같아 걱정하였는데, 주위에서 많은 조언들을 주셔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노인봉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보면 어떻까 생각했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노인체육 지도사, 웃음치료사, 라인댄스 자격증 등을 취득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바쁘게 보내다 보니 퇴임 후 허무감이나 공허함이 많이 달래진 것 같다.

3. 오랫동안 이화의대에 몸담으셨는데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식상하지만 의사로서 가장 기쁜 일은 환자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이다. 이런 기억이 있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또 전공이 산부인과 이다보니 제자나 레지던트가 알고 보면 내가 받은 아이들일 때가 있어 놀랐던 기억이 있다. 대를 이어 아이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내가 참 오래 일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4. 퇴임 후 계획은?

퇴임하면 사회봉사와 공부에 매진할 생각이다. 무료건강검진센터에서 의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봉사하겠다. 또 성당봉사 특히, 관심을 가져온 노인활동에 매진하고 싶다. 이를 위해 노인체육지도사, 웃음치료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일본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 지금까지 마라톤을 47번을 풀코스를 완주했고 보스톤, 시카고, 일본 마라톤 등 해외에 서만 20번 정도 뛰었다. 그런데 일본이 마라톤 기반이 잘되어 있고 가까워서 좋다. 일본어를 마스터해서 남편과 함께 자주 일본 마라톤 대회도 참가하고 관광안내도 하고 싶다.

5. 기부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동대문에서 목동으로 병원이 이전하면서 병원에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부를 시작했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사고 이후 인생이 덤이라는 기분이 들어 평생 내가 몸담아온 학교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 퇴임 후에도 힘이 되는대로 도와주고 싶다.

6. 마지막으로 후학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1997년 11월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수혈도 40병 이상 받았고, 병원에 100일 이상 입원하면서 걷지도 못할 만큼 큰 사고였다. 그때 휴직하면서 지독하게 재활에 매달렸다. 지금 마라톤 하는 것을 보면 모두들 기적으로 여긴다. 재활을 마치고 복직하면서 인생을 덤으로 얻은 기분이었다. 흔한 말이지만 후학들에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라고 말하고 싶다. 하루하루가 소중하다.

- [약/력] △1969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1975년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993년 이화여자대학교 의대 부속 목동병원 산부인과 과장
 △1994년 이화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의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등 약정현황

(2010년 4월~6월)

내용 및 후원자	금액
〈의과대학동창회(29기)장학금〉 이종민 성금영 김문자	20,000,000 5,000,000 2,000,000
강경숙, 김우경, 김운자, 김재숙, 노미란, 박미영, 박숙현, 송태숙, 심현, 오영, 원경희, 유병희, 유선영, 윤혜원, 이민정, 이영혜, 이원경, 이재현, 이진희, 장명옥, 장주은, 조명득, 차석희, 최숙희, 최신영, 최정심, 한선남, 홍기숙, 홍영미	29,000,000 (각 1,000,000)
〈의과대학동창회(21기)장학금〉 서정은	1,000,000
〈국제교류장학금〉 백희정 김지형 고은실 서정완 정락경 이영이 이명재	10,000,000 3,000,000 2,000,000 1,000,000 1,000,000 500,000 100,000
〈이화사랑 장학금〉 하영식	10,000,000
〈졸업50주년기념장학금〉 강옥련, 김경환, 김연옥, 김옥영, 김원자, 민태희, 박보훈, 심명자, 양옥균, 차순자	10,000,000 (각 1,000,000)
경난호, 이용옥, 이해경	600,000
〈소아과학교실발전기금〉 이수정 이승주	30,000,000 1,000,000
계	126,200,000

알/립/니/다

+ 소식지 원고 모집

-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소식지는 분기별 (3/6/9/12월) 발행되며, 소식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jkkim9999@ewha.ac.kr)
- 소식지 내용은 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 홈페이지(<http://www.ewhamed.ac.kr>) 내 학교소개/소식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동창 주소 변경 문의 (이화의대동창회 사무실 TEL. 02) 2650-5782)